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중앙은행들의 난제: 주택시장 호황에 따른 인플레이 영향
- ◇ (분석)-BOJ, 의사소통 딜레마에 직면하다..인플레이 촉진 실패로 정책만 복잡해져
- ◇ (단독)-통안채 3년물 발행, 원점에서 재검토 - 한은 관계자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의 뉴델리의 한 화장장에서 코로나 19 사망자를 집단 화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로이터/대니시 시디퀴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4월23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17.8	-0.1%	-2.8%	+6.5%	유로	1.2099	1.0%	-0.9%	+8.9%
100엔 대비	1,032.7	-0.6%	1.8%	+1.1%	엔	107.91	0.8%	-4.3%	+5.2%
유로 대비	1,348.7	-0.8%	-1.7%	-2.3%	위안	6.4912	0.5%	0.6%	+6.7%
위안 대비	171.59	-0.2%	-3.1%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4,043.49	-0.5%	11.2%	+7.2%
코스피	3,186.10	-0.4%	10.9%	+30.8%	나스닥	14,016.81	-0.3%	8.8%	+43.6%
코스닥	1,026.82	0.5%	6.0%	+44.6%	S&P500	4,180.17	-0.1%	11.3%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92.83	-0.4%	4.6%	+19.8%
국고채 3Y	1.120%	-3.4bp	14.4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573%	-0.9bp	23.8bp	-14.5bp	미국채 2Y	0.160%	-0.4bp	3.9bp	-144.0bp
국고채 10Y	2.043%	2.0bp	33.0bp	+3.0bp	미국채 10Y	1.560%	-3.1bp	64.8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62.14	-1.6%	28.1%	-20.5%	한국 5Y	20.3bp	-0.8bp	-1.7bp	+0.1bp
금(현물)	1,777.18	0.0%	-6.3%	+25.0%	일본 5Y	16.8bp	0.4bp	1.7bp	-4.5bp
TR상품지수	2,919.07	4.3%	8.9%	+7.8%	중국 5Y	38.5bp	4.0bp	10.5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4월 26일(월)>

- 금감원, 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 금감원, 2020.12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 비율 현황(12:00)
- 한은, 향후 pent-up 소비 가능성 점검(BOK 이슈 노트 2021-6)(12:00)

### <27일(화)>

- 금감원, 2020년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현황(06:00)
- 한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08:00)

### <28일(수)>

- 한은,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 통계청, 2월 인구동향·3월 국내인구이동(12:00)

### <29일(목)>

- 한은,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기재부, 부총리·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08:30), 1차관 브리핑(13:30)
- 한은,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기재부,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17:00)

### <30일(금)>

- 통계청, 3월 산업활동동향(08:00)
- KDI 북한경제리뷰(12:00)
- 금융위, 공매도 부분 재개(14:00)
- 한은,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국민연금기금 운용 중기자산배분(2022~2026) 수립 추진현황, 2021년도 2월 국민연금기금운용현황 보고 등)(14: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4월 26일(월)>

- 미국, 3월 내구재 주문(21:30)
- 미국, 4월 델러스연은 제조업지수(23:30)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27일)
- 뉴질랜드 휴장

### <27일(화)>

- 중국, 3월 산업이익(10:30)
- 유로존, 4월 기업환경지수(18:00)
- 미국, 2월 주택가격(22:00)
- 미국, 4월 소비자신뢰지수(23:00)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28일)

### <28일(수)>

- 일본, 3월 소매판매(08:5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20:00)
- 미국, 3월 도매재고·소매재고(21:30)
-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비회원국 장관급 화상 회의

### <29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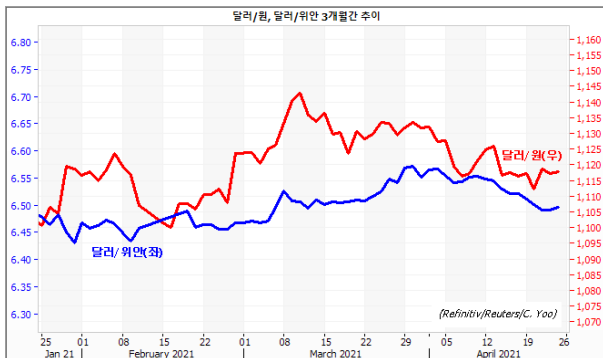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03:00-03:30)
- 유로존, 4월 소비자신뢰지수 최종(18:00)
- 유로존, 3월 총유동성(M3) 증가율(19:00)
- 유로존, 3월 가계대출(19:00)
- 미국, 1분기 GDP 잠정치(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1:30)
- 미국, 3월 잠정 주택판매(23:00)
- 일본 휴장

### <30일(금)>

- 일본, 4월 도쿄 CPI(08:30)
- 일본, 3월 실업률(08:30)
- 일본, 3월 산업생산 잠정치(08:50)
- 일본, 4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최종(09:30)
- 중국, 4월 NBS 제조업·비제조업 PMI(10:00)
- 유로존, 4월 소비자물가지수(18:00)
- 유로존, 1분기 GDP 잠정치(18:00)
- 유로존, 3월 실업률(18:00)
- 미국, 3월 개인소득(21:30)
- 미국, 3월 근원 PCE 가격지수(21:30)
- 미국, 1분기 고용비용(21:30)
- 미국, 4월 시카고 PMI(22:45)
- 미국,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23:00)
- 대만 휴장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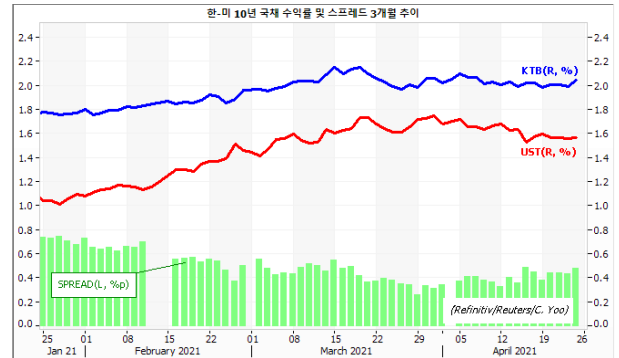
##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 배당 지급 부담 약화로 상단 저항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글로벌 위험 선호와 달러 약세 여건이 마련된다면 단기 박스권 하향 이탈 시도도 예상해볼 수 있겠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05-1125 원이다.
- 배당 관련 지급 강도는 한층 둔화됨에 따라 시장 재료로서의 영향력도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이런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단기 환율 흐름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시장 테마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다. 지난 3월 회의를 통해 시장 내 긴축 우려를 잠재우는 데 성공한 연준이 이전과 결이 다른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은 작다.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 관련 견해를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미국 채권금리 발 달러 강세 모멘텀이 재확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 한편 이번 주는 한국(속보치)과 미국(잠정치) 등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된다.
- 최근 국내외 코로나 19 재확산이 투자심리 회복의 걸림돌이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 성장 회복 전망은 크게 훼손되지 않아 국내외 지표 호조에 따른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지급 영향력에 다소 벗어난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글로벌 달러와 증시 움직임을 주로 살펴며 방향성 탐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공급과 펀더멘털 재료를 반영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전 주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여파로 시장금리가 크게 올랐다.
-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지침을 다시 강화할 경우 성년 자영업자들을 달랠 지원책 마련 필요성이 바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지난해부터 반복된 재난지원금 지급장을 다시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
- 26일과 27일에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5년물 2조 7000억원과 국고채 20년물 7000억원어치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30일엔 2년물과 3년물 각각 3000억원씩 총 6000억원 규모의 모집방식 비경쟁인수를 실시한다.
- 재난지원금 이슈가 다시 터진 시점에 맞게 될 국고채 입찰의 결과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 한국은행은 오는 27일 1분기 실질 GDP를 발표한다. 28일에는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29일에는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내놓는다. 통계청은 30일에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분석)-중앙은행들의 난제: 주택시장 호황에 따른 인플레이 영향**

런던 (로이터) - 팬데믹조차 막지 못한 수년 간의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세에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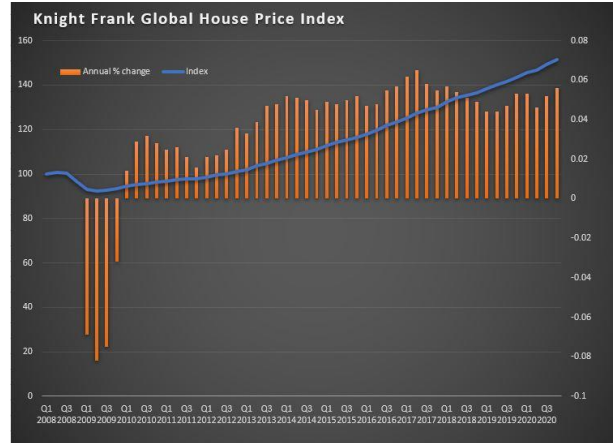
호주, 스위스 등 정부는 부동산 가치 상승을 부의 창출로 좋게 여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백만 명이 주택 소유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버블 리스크가 초래되고 사회 비용이 커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저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했는데, 중앙은행들은 통화 정책 설정에 중요 요소인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주택가격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임대료, 주택 수리비 등 주택 관련 비용은 미국 40% 이상, 유로존 6.5% 등 인플레이션 지수 내 가중치가 다양하지만, 주택가격 그 자체는 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점점 더 높아지자, 많은 이들이 인플레이션 지수에 주택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서 '인구구조의 대전환(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부활을 주장한 마노즈 프라단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점점 더 불거질 것이며, 주택가격은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트프랭크 지수에 따르면 글로벌 주택가격은 지난 10년간 60% 상승했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제 타격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가 평균 5.6% 올랐고, 20~30%까지 급등한 시장도 있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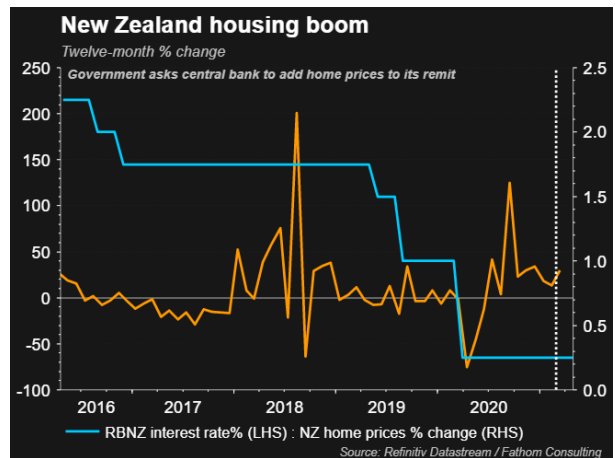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저금리를 비롯해, 주택 소유에 대한 정부의 기존 보조금과 재산세 징수에 등 팬데믹 관련 지원책도 있다.

일회성 조치들은 대부분 철회되겠지만, 다부동산 소유 금지나 건축 규제 완화 등 물가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치적으로 까다로운 조치들의 경우 정부가 실행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앙은행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 첫 조치

지난 2월 뉴질랜드 정부는 작년 23%나 급등한 주택가격에 금리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중앙은행에 지시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주 생활비 상승에 대한 주택가격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올해 공개될 전략적 정책 리뷰의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공식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높다면, 이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확장적이라는 뜻일 수 있다.

프라단 이코노미스트는 "CPI 에서 주택과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경제는 더 과열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임대료 인플레이션은 판데믹 여파, 또는 저금리 및 재택 근무에 따른 주택 구입 증가 영향으로 낮은 상태다.

앤드류 시츠 모간스탠리 다중자산 수석 전략가는 이것이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며 "임대시장은 약세, 주택시장은 강세일 것이다. (임대시장 약세는)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지수에서 주택가격은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주택은 지속적인 비용이라기보다는 평생 한번 구매하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또 중앙은행들이 정책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인플레이션 측정치에 주택가격을 포함하는 것은 주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지수에 유지비, 주택 개선비 등 거주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하려는 중앙은행들이 늘고 있을 수 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일본은행, 뉴질랜드 중앙은행, 호주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인플레이션 지수에는 이른바 자가거주자 비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영란은행이 사용하는 지수에는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ECB 가 사용하는 주요 인플레이션 지수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

ECB 는 자가거주자 비용을 포함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19 개국에서 적절하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유로존 내 주택 소유 수준이 다르다는 점은 이 작업은 복잡하게 만든다.

결정적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0.2~0.3%포인트 상승하고, ECB 는 2% 부근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 잠잠했던 인플레이션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결정 변화는 판데믹으로 불확실성이 큰 현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다.

그동안 잠잠했던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CPI 지수에 부동산 가격을 포함시키게 되면, 인플레이션 지수는 급등할 것이고 이에 중앙은행들은 정책 긴축 압력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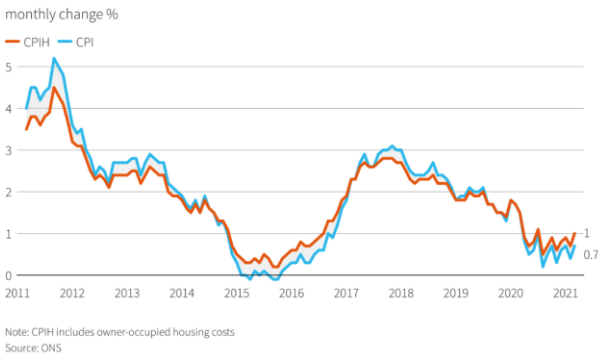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판데믹 기간 동안 도입된 지원책이 철회되면 주택시장 랠리가 대체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본다.

주택에 대한 중앙은행의 의무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은 긴축 정책이 부동산 공급을 억제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대니 립지거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는 양도소득세 인상, 주택 공급 확대 등 중앙은행 권한 외의 규제와 조치로 주택시장 과열이 더 효과적으로 완화된다고 주장한다.

립지거 교수는 "ECB 가 임대료나 주택 소유자 비용을 인플레이션 바스켓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베를린이나 마드리드의 주택가격이 우려스러울 때 ECB 에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UK inflation: with and without housing cost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분석)-BOJ, 의사소통 딜레마에 직면하다..인플레이션 촉진 실패로 정책만 복잡해져

도쿄 (로이터) - 일본은행(BOJ)은 부진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경기부양책을 펼쳐왔지만, 현재 남은 거라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뿐이다. 이에 한때 대담하고 단순한 메시지로 유명했던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의 소통 능력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BOJ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촉진에 실패했던 양적완화 약속을 고수하는 것 외에는 향후 물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꿀 전략이 부족하다.

현재 BOJ의 상황은 판데믹으로 권한이 확대된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장에 자신들의 정책 의도를 전달하는 데 있어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한다. 이들 중앙은행과 정부가 투입하고 있는 유동성은 미래 인플레이션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향후 정책 대응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BOJ 이사를 역임한 몸마 가즈오 미즈호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BOJ가 효과 없는 정책을 고수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2%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BOJ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BOJ는 이 목표를 고수하며 현재의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이 정책을 완전히 점검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려운 결함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구로다 총재가 '바주카포' 부양책을 실시할 당시 디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그의 전략

은 분명했다. 간단한 의사소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물가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며 다시 소비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는 양적완화 속도를 두 배로 늘려 2년 안에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며 이같은 전략을 썼다.

그러나 그 이후 2014년 소비세 인상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면, 근원 소비자물가는 2%에 도달했던 적이 없었다. 가장 최근에는 물가가 2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하기도 했다.

임기를 2년 남겨둔 현재, 구로다 총재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빨리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 대신 그는 현재 부양책을 인내심을 갖고 유지한다면 목표 달성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BOJ는 2016년 충격요법을 철회하고 금리 겨냥 정책을 다시 채택했다. 이에 두 가지 금리 목표, 다양한 리스크 자산 매입, 판데믹 구제 대출 계획, 그리고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약속이 결합한 복잡한 정책이 완성됐다.

또 완화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BOJ의 메시지는 미묘해졌고 명확한 목표는 사라졌다. 구로다 총재는 이제 추가 완화 시 이미 낮은 금리로 타격을 입은 일본의 은행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BOJ는 자신들의 존재감이 너무 커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인정하듯 지난 3월 리스크 자산 매입 속도 목표를 제시했고 장기 수익률 통제를 완화했다.

BOJ는 차입 비용을 충분히 오래 낮게 유지하면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촉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부양계획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초점을 옮겼다.

이러한 소극적인 접근법은 지난 2013년 구로다 총재가 일본의 디플레이션 사고방식을 뿌리 뽑기 위해 "모든 가능한 도구를 한번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BOJ가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2%를 넘을 때까지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약속밖에 없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있고 시장은 향후 몇 년 동안 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같은 약속은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대중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BOJ의 3월 분기 서베이를 살펴보면 가계 18%만이 인플레이션 목표 2%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2013년 9월의 37%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서베이 응답자 약 60%는 '수익률커버먼트(YCC)를 이용한 양적·질적 통화완화'라 불리는 BOJ의 현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BOJ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확실한 것은 일본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바주카포를 두 번 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단독)-통안채 3년물 발행, 원점에서 재검토 - 한은 관계자**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통안채) 3년물 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한은은 그동안 통안채 3년물 발행을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 왔지만, 시장 여건이 상당 부분 달라졌다는 판단 아래 다시 한 번 유효성을 점검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21일 한은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고채 2년물이 발행되고 있음에도 통안채 2년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적었는데, 상황이 이렇다면 굳이 3년물을 발행해서 금리 상승 압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달라진다"며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이나 통안계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공개시장운영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통안채 발행을 위한 시스템적 준비는 돼 있지만 통안채 3년물 발행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6월에 금통위로부터 통안채 발행해도

의결을 받는데 이 때 3년물 발행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에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유동성조절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해 통안채 발행의 규모를 조절하고 필요시 3년물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통안채 2년물 수요 구축 가능성이 제기되자 내놓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국고채 2년물 발행에도 통안채 2년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RP 매각과 통안계정 입찰을 통한 공개시장운영도 큰 차질 없이 이뤄지면서 통안채 3년물 발행의 유효성에 대한 재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한편 한은 관계자들은 "통안채 3년물 발행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주열 총재의 지난 15일 금통위 기자간담회 발언은 통안채 3년물 발행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의 한은 관계자는 "통안채 3년물 발행을 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총재 입장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는 했다고 밝힌 것 뿐"이라며 "지금 시점에 통안채 3년물을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었다면 답변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은 관계자는 "실무진이 통안채 3년물 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놓았다는 것과 발행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통안채 3년물 발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발행할 여건은 마련해놓았다고 총재가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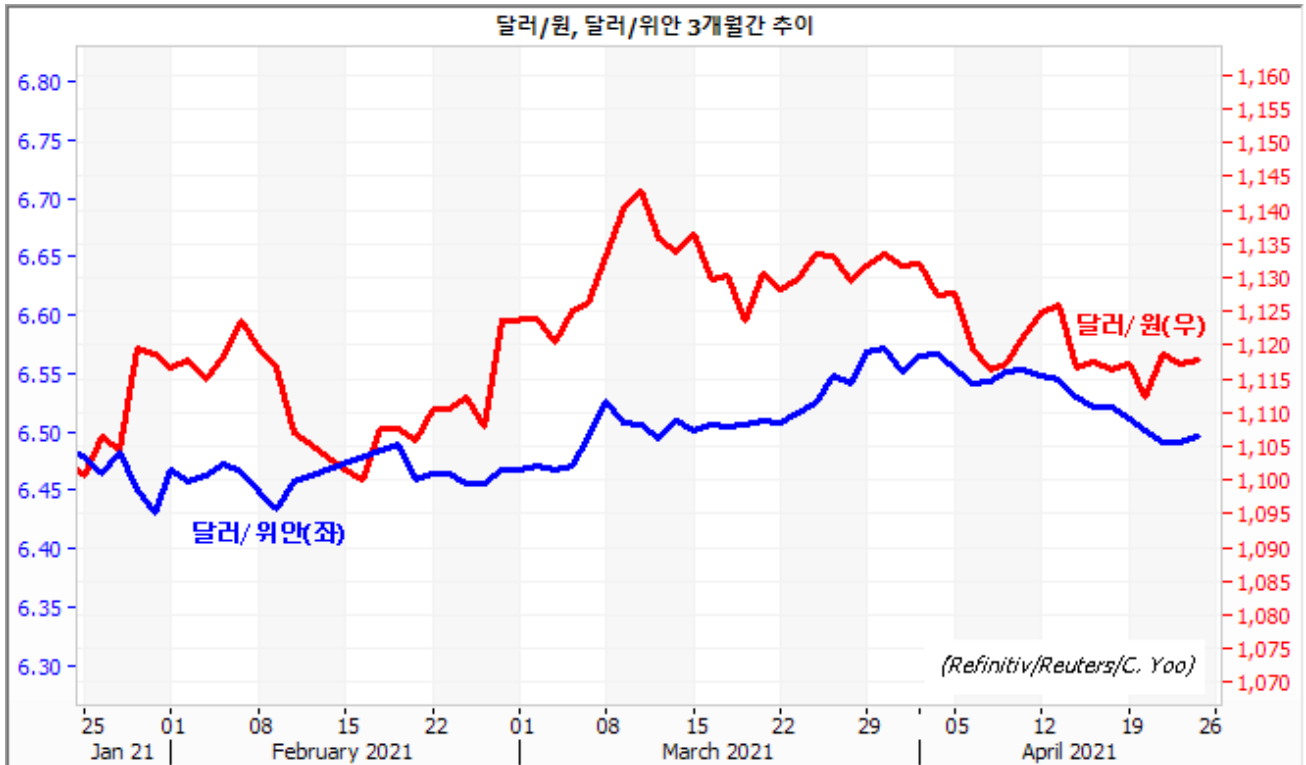
그는 "유동성 조절상황 등을 봐야겠지만 일단 발행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꺾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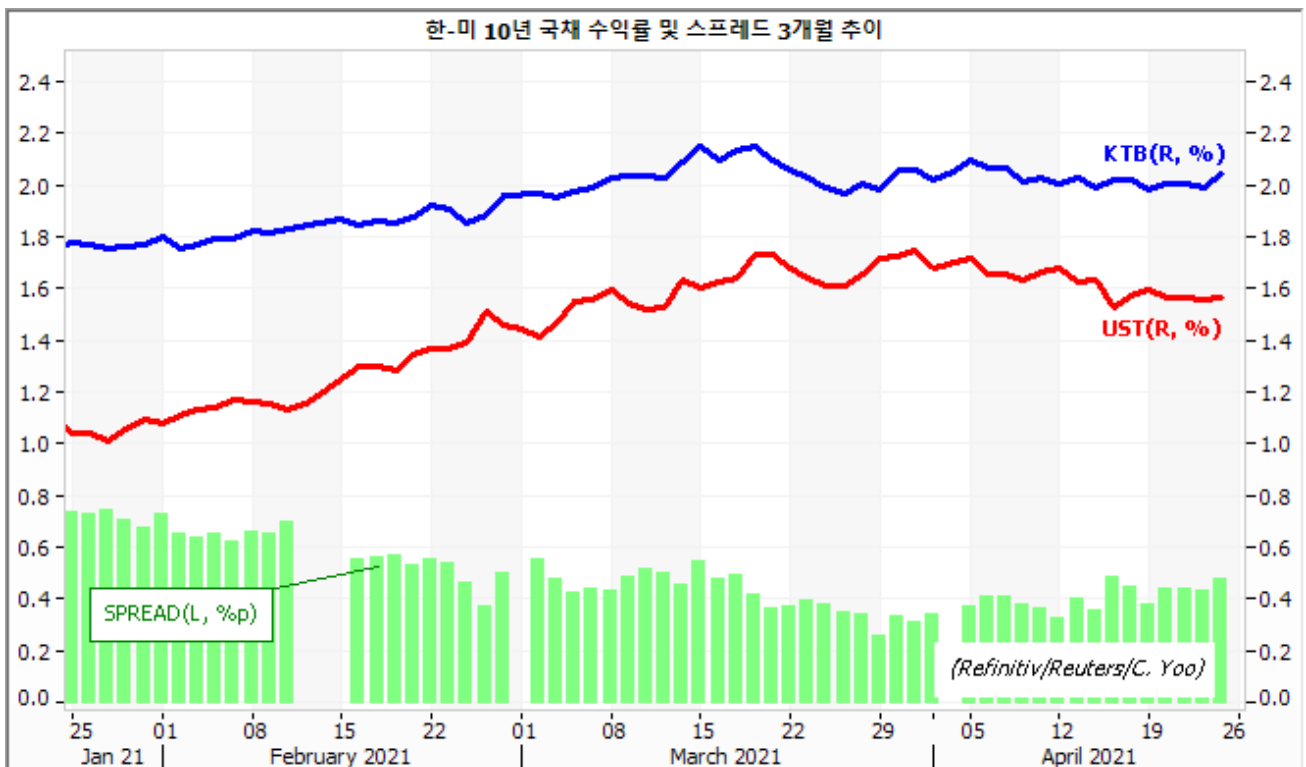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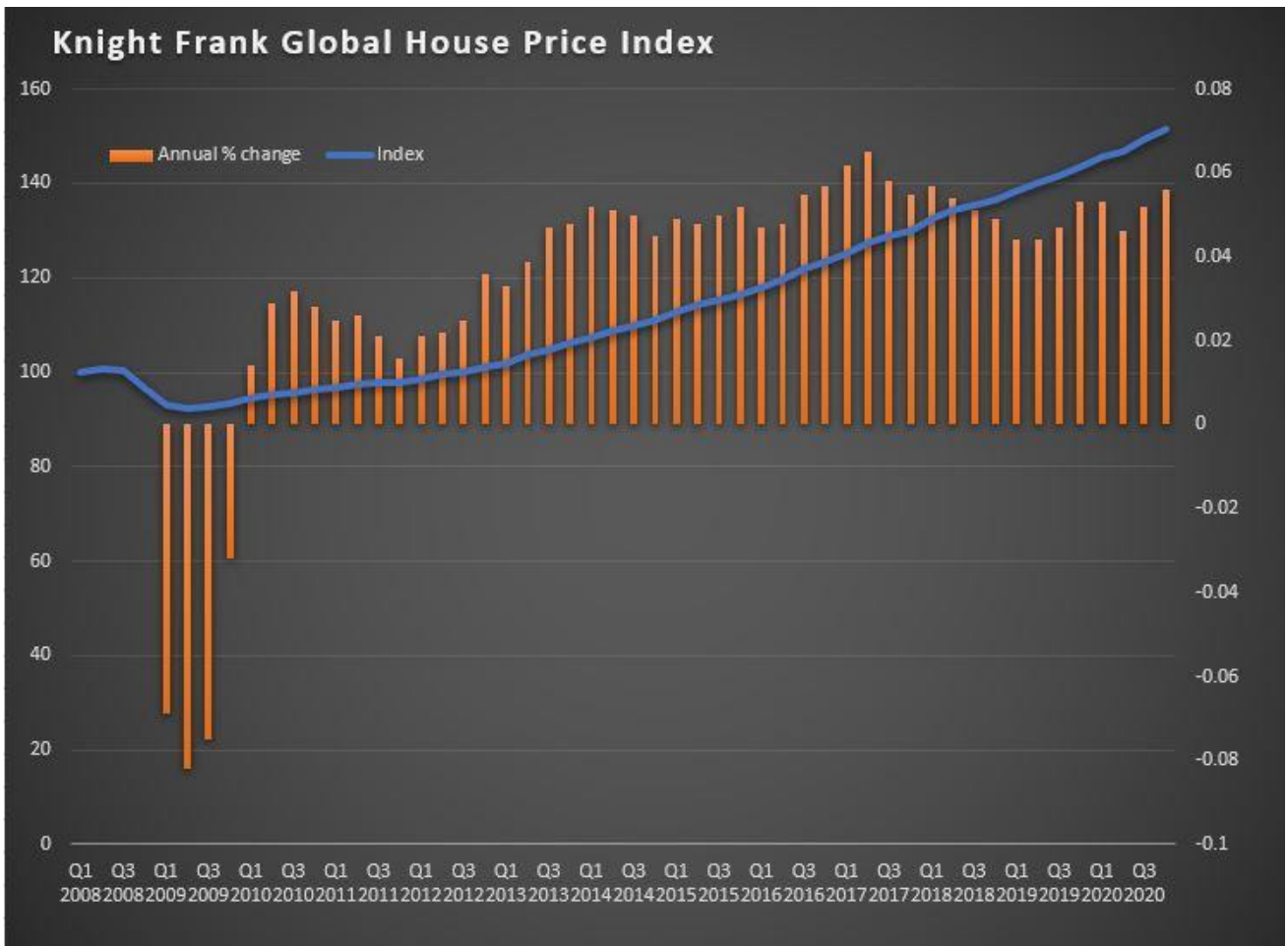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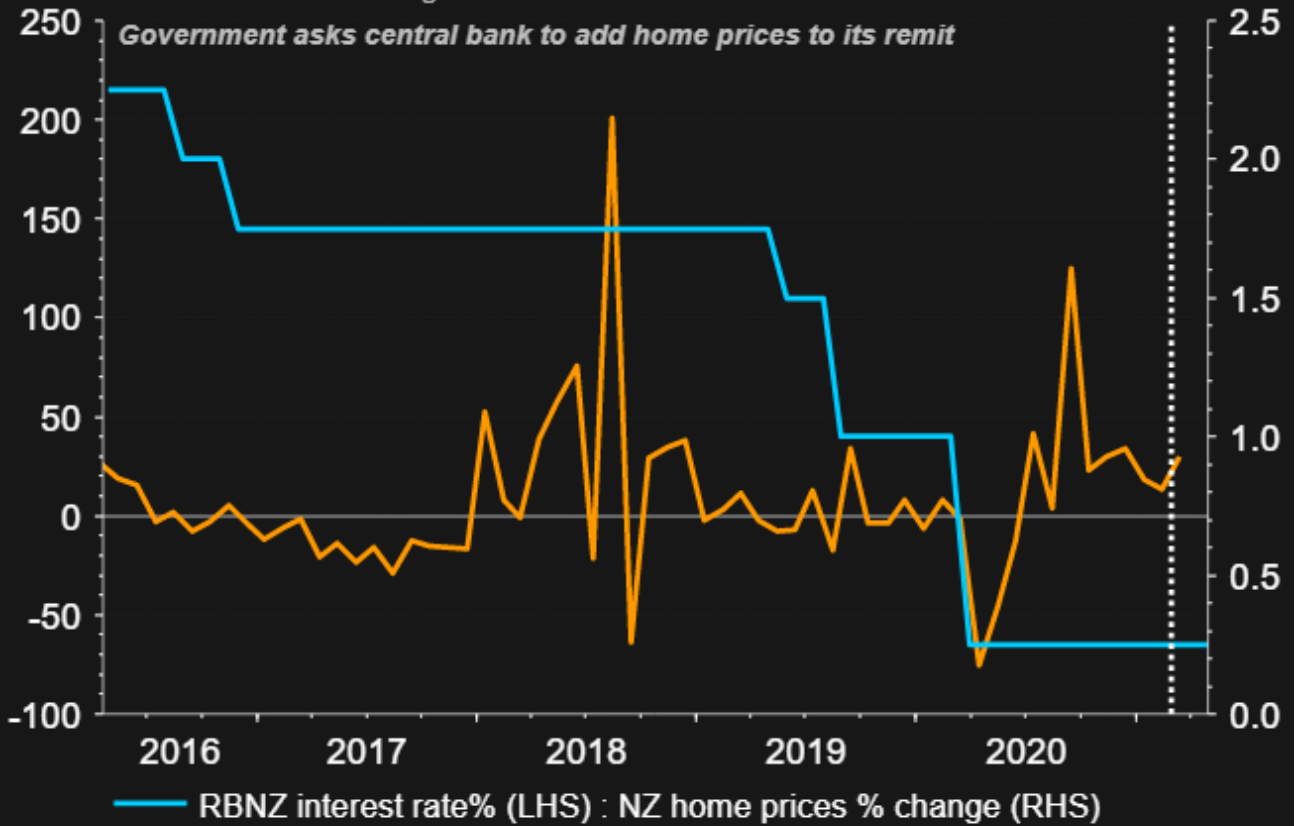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New Zealand housing boom

Twelve-month % change

Government asks central bank to add home prices to its rem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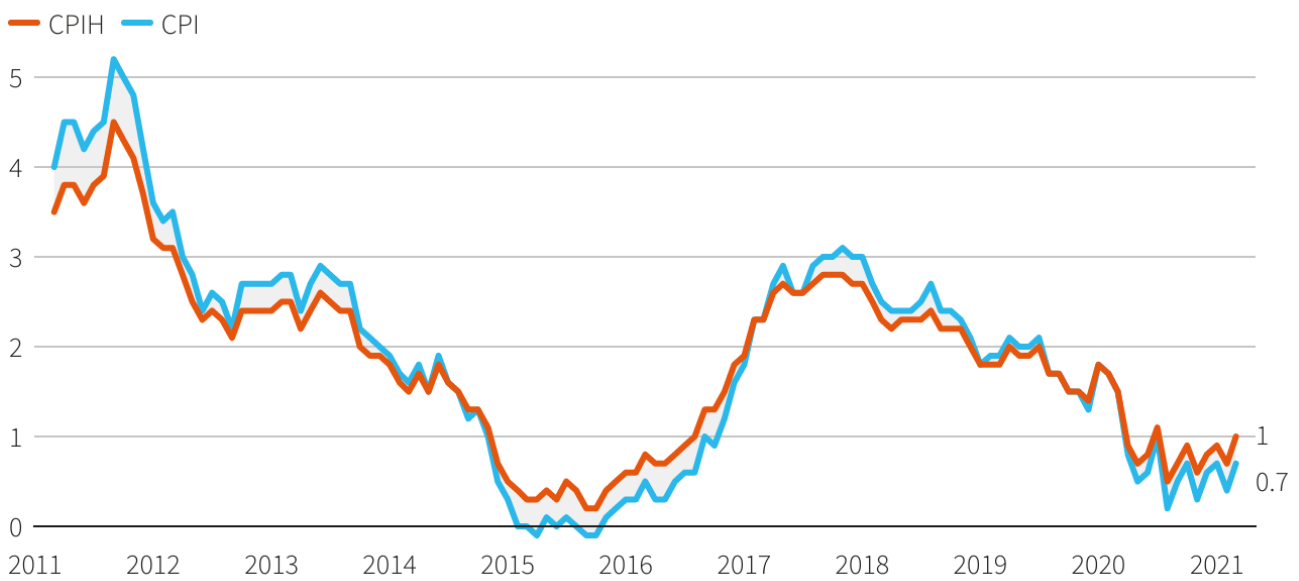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Fathom Consulting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UK inflation: with and without housing costs

monthly change %



Note: CPIH includes owner-occupied housing costs

Source: ON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